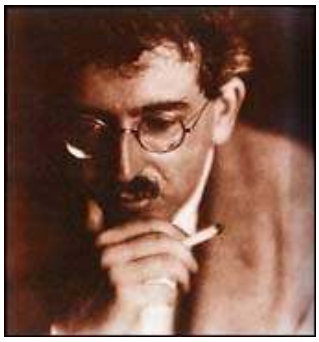
제2강 발터 벤야민 : 아담의 언어와 예술비평

(1교시) J_Jgjin03_031215_03

◎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 1892~1940)



"모든 사물에 들어있는 내재적 본질에 맞는 음성을 부여해야 한다."

◆ 아담의 언어 (관계맺음)

언어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언어를 갖고 있으며, '말함'으로써 사물은 창조되고 인식된다. 언어적 본질을 발견해 내어 그것을 '이름'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본질을 드러내고, 사물·자연과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 언어의 타락 (대상화)

언어가 한갓 자의적 기호, 전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개별적 고유성은 무시되고 사물의 정신적, 언어적 본질이 부정된다. 즉 사물·자연 등은 인간의 도구,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 미메시스(mimesis): 모방. 존재론적 닮기의 시도. 사물이나 사건을 재현해내는 인간의 원초적인 능력.

◆ 예술비평 (구제비평)

벤야민의 예술비평의 토대는 초기 언어철학으로서, 그는 타락 이후에도 아담의 언어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며 **비평으로써 예술의 소리 없는 말을 구원**하려 했다.

"결코 씌어지지 않은 것을 읽는다."

벤야민의 이론은 소쉬르로 대표되는 **도구주의적 근대 언어철학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이다.

* 페르디낭 드 소쉬르. 언어구조학적 관점에서 랑그와 빠롤(기표와 기의)의 개념을 분석, 언어와 언어의 의미, 즉 이름과 사물의 본질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www.artnstudy.com

(2교시) J_Jgjin03_031215_04

◎ 벤야민의 언어관에 드러난 숭고와 시뮬라크르

◆ 숭고의 언어학

언어의 진정한 본질은 신의 '말씀'처럼 없었던 것을 있게 하는 존재 수립의 기능, 혹은 아담의 이름처럼 사물의 참된 모습을 현전시키는 개시 기능에 있다. 벤야민과 하이데거는 언어의 이 근원적 힘을 되살리려 한다. 은밀한 진리의 언어를 열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숭고의 미학을 엿볼 수 있다.

◆ 시뮬라크르 언어학

기존에는 원본이 번역되고 복제될수록, 즉 근원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본래의 의미가 손상된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벤야민은 원작과 복제 사이의 위계를 허문다. 하나의 의미는 한 번의 특권적인 번역이 아닌 여러 시뮬라크르 놀이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원본의 무한한 가능성을 뜻한다. 벤야민의 이 언어관에 시뮬라크르 사상의 맹아가 담겨있다.

* 당시 예술관의 대립

낭만주의: "예술의 본질은 형식들의 무한한 전개, 즉 **전체성 속의 무한성**."

고전주의: "예술의 본질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

◎ 유사와 상사

유사(ressemblance)가 원작과 복제 사이의 위계를 함축한다면 상사(similitude)의 관계에는 그런 위계가 없다. 유사의 관계에서는 복제가 원본을 닮음으로써 진리가 성립하지만, 상사의 관계에서 진리는 재현의 의무에서 벗어난 복제들의 놀이 속에서 점진적으로 전개된다.

이때 벤야민에게는 재현으로서의 유사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사성**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사물이 갖는 근원적 본질을 보려는 열망이다.

『벤야민의 문예이론』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www.artnstudy.com